

교수 동정 및 동문 소식

[국악과]

임재원 교수, 2008대학국악관현악축제 지휘

11월 18일~21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는 '국악의 내일, 젊음에 묻다'라는 제목으로 '2008대학국악관현악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의 첫 날인 18일은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가 참여했으며 서울대학교가 1부를 맡아 임재원 교수가 '연변목가'를 지휘하였다.

김승근 교수, 국악작곡축제 특강

11월 21일~2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는 '2008국악작곡 축제'가 열렸다. 창작국악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어보고 이와 동시에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에서 김승근 교수는 '국악작곡축제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였다.

[성악과]

박세원 교수, 박현재 교수, 오페라 '돈 카를로'

11월 27일~30일 세종대극장에서 오페라 '돈 카를로'가 열렸다. 박세원 교수는 예술총감독으로, 박현재 교수는 돈 카를로를 맡았으며 최승한 지휘, 까를로 안토니오 데 루치아 연출 그리고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서울시합창단이 연주하였다.

[작곡과]

이신우 교수, The Pathway Ensemble 코랄 환타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11월 7일 금호아트홀, 11일 서울대화요음악회, 19일 은평강리교회, 22일 한성대 효암채플과 영덕읍교회에서 이신우 교수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고은이, 장지혜 등이 연주하였다.

정태봉 교수,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연주

10월 22일~25일 예술의전당에서 대한민국 국제음악제가 열렸다. 그 중 22일 콘서트홀에서는 Andreas Delfs의 지휘와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정태봉교수의 교향시 '한국'이 초연되었다.

[기악과]

김영률 교수,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정기연주회

11월 22일 예술의전당에서 아울로스 목관5중주 제22회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 날 연주에서는 '백병동과 쇠베르크'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현대음악을 선사하였다.

백청심 교수, 트리오 콘서트

11월 22일 세종체임버홀에서 야노스 마테, 백청심, 올리브 케론 트리오 콘서트가 열렸다. 이 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와 멘델스존 그리고 브람스의 트리오 곡을 연주하였다.

장형준 교수 피아노 독주회

10월 20일 세종체임버홀에서 피아니스트 장형준 교수가 독주회를 열었다. 러시아 작곡가 무소르그스키의 피아노 주 작품을 연주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콩쿠르 입상 소식

국악과 · 온누리 국악경연대회

관악부분 1등 김현수(석사08) / 가야금 금상 이화영(04)

작곡 · 이탈리아 비오티(MOTTI) 국제 작곡 콩쿠르 Finalist Prize 정영빈(석사06)

· 피아노 듀오 콩쿠르 대상 박용빈(05)

성악과 · 제57회 이화 경향 콩쿠르 2위 박소영(05), 성이현(06)

- 제4회 신영옥 콩쿠르 은상 황수미(석사08)
- 제10회 부일성악콩쿠르(고태국콩쿠르) 1위 정혜민(02) / 3위 이승수(04)
- 제17회 성정음악콩쿠르 금상 김황경(03), 박소영(05) / 은상 정혜민(02)

피아노 · 수리음악콩쿠르 대상 노예진(05)

· KBS한전음악콩쿠르 은상 노예진(05), 최현호(08)

관악 · KBS한전음악콩쿠르 대상 오보에 조은영(05)

현악 · 동아음악콩쿠르

1등 배지혜(첼로) / 2등 장소희(첼로) / 3등 안영주(첼로)

음악대학 회원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 제도 시행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은 학생들이 학생입장에서 더 나아가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음악회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청중들도 주어진 음악회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음악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뜻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Friends)'라는 회원제도를 마련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는 문화예술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새로이 마련한 회원 제도이다. 회원에게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기획하는 음악회의 관람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프렌즈의 회비는 음악대학의 교육, 연구 활동을 돕고 학생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며 음악대학에서 주최하는 음악회의 기획과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사용될 것이다.

회원에게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주최, 주관하는 모든 음악회의 초대권 2매 및 음악회 프로그램 무료 제공
- 서울음대 소식지 우송

회비

1년 회비: 10만원 / 2년 회비: 20만원 / 3년 회비: 25만원 / 4년 회비: 30만원
농협 079-01-469806 (예금주: 서울대음악대학)

※가입신청에 관한 문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02-880-932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음대 발전기금 모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발전기금은 시설개선 및 모교 재학생 지원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재원확보로 이어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농협 079-17-065663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신한은행 100-023-845777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

문의: 음악대학 학장실 02) 880-7900, 음악대학 기획홍보실 02) 880-9320

(재)서울대학교 발전기금 02)880-5026, 871-8146 / Fax: 02)872-4149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번지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228호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우151-818)



음대 소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뉴스레터 제4호

발행인: 정태봉

발행처: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울음대 기획홍보실 Tel: 02)880-9820 Fax: 02)882-9320

[학장 인사말]

가을 그리고 겨울, 우리가 거두는 알차고 풍성한 열매



생기의 움직임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을 뿔내던 관악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겨울잠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게지요. 지난여름, 초록빛 관악에 가득 울려 퍼지는 팡파르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름을 즐기롭고 부지런하게 잘 보내면 알찬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계절이 오리라는 믿음을 다지며 쉬지 않고 움직였지요. 그리하여 이제 그 알차고 풍성한 열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워 가슴이 뿌듯합니다.

지나간 여름과 가을, 우리 음악대학 가족들은 세계를 무대로 눈부신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성과를 거두었지요. 그 기록들이 이 '음대소식'에 실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눈여겨보시는 데에 시간이 좀 든다 해도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 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흐뭇한 마음이 들어서 서로 박수를 나눈다 해도 누구 하나 트집 잡을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우리는 국내 최고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세계 최고를 향해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늘 따뜻한 눈으로 지켜주시는 눈길이 많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눈길에 커다란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만드는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눈을 뜰 수 없게 만드는 눈보라도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게지요. 그렇습니다. 알차고 풍성한 열매란 바로 그 소중한 힘이 빚어낸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음대소식'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함 또한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 가득 담아 인사드립니다.

가는 해와 아름답게 작별하시고, 오는 해 크나 큰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12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정태봉



서울대학교 제25회 정기오페라 '리골렛토(Rigoletto)'

지난 2008년 10월 15일~1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는 음악대학과 오페라연구소 주최로 제25회 정기오페라 '리골렛토(Rigoletto)'가 열렸다.

예술총감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박세원교수
지휘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김덕기교수
연출 | Carlo Antonio de Lucia (2007년 서울시오페라단 리골레토 연출가)
(3 page에서 계속)

2008년 각 과 소식

국악과

- 11월 7일 / 국악과 50회 정기연주회(문화관 대강당)
- 11월 18일 / 대학국악관현악축제(국립국악원 예약당)

성악과

- 10월 15일~18일 / 제25회 정기오페라 '리콜레토' (문화관 대강당)
- 11월 19일 / 서울대학병원 권택균교수 '성악인을 위한 음성학' 특강 (예술관 콘서트홀)

현악

- 10월 7일 / C. Henkel(Cello) Master Class(예술관 소연습실)
- 11월 12일 15시 / 요요마(Cello) Master Class(예술관 콘서트홀)
- 11월 11일~14일 / 만하임음대 Roman Nodel(Violin) Master Class (예술관 소연습실)
- 11월 17일 / 현악합주(예술관 콘서트홀)
- 11월 19일 / 노부코 이마이(Viola) Master Class(예술관 소연습실)
- 11월 20일 / 노부코 이마이(Viola) 초청연주(예술관 콘서트홀)
- 11월 20일 / Saksala(Bass) Master Class
- 11월 21, 24일 / 한준영(Harp) Master Class

관악

- 9월 23일 / 대학 Symphonic Band 연합축제(장천아트홀)
- 9월 28일 / 대학 Symphonic Band 연합축제(수원 야외음악당)
- 9월 26일 / SNU Percussion Group 정기연주회
- 11월 15일 14시 30분 / 서울대학교 · 동경예술대학교 관악합주 합동공연 (예술의전당)

피아노

- 10월 9일 / Fanny Waterman - lecture& Master Class(예술관 콘서트홀)
- 10월 13일 / 김정자 선생님 Master Class
- 10월 24일 / Jorg Demus - lecture Demonstration(예술관 콘서트홀) (바하 평균율)
- 11월 4일 / Christopher Harding 화요음악회(문화관 중강당)
- 11월 7일 / Christopher Harding - Master Class(예술관 콘서트홀)
- 11월 19일~20일 / 신수정 선생님 Master Class
- 11월 21일 / 이동은 선생님 - 음향에 관한 강의(예술관 콘서트홀)

SNU New Music Series - Studio2021

2008 Autumn Season



I. SNU Meets EAMT

- ▶ Concert <SNU Meets EAMT> 9월 18일 19시30분 / 영산아트홀

【Program】

- 최우정(Uzong Choe) - Sequentia for 2 clarinets in A
- Erkki-Sven Tüür - 'Conversio' for violin and piano
- Helena Tulve - 'Saar' for violin and clarinet
- Toivo Tulev - Early Music
- 송낙호(Nacco Song) - Concerto for Two Pianos
- 전상직(Sangjick Jun) - 'Ensemble Multicolore - II' für Bläserquintett
- 윤이상(Isang Yun) - Musik für sieben Instrumente
- ▶ Lecture <Toivo Tulev, Contemporary Estonian Music> 9월 19일 17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시청각실

II. K. Huber&Pagh-Paan at SNU

- ▶ Lecture <Klaus Huber, About my recent work 'MISERERE HOMINIBUS'> 10월 27일 13시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시청각실
- ▶ Composition Nesson&Workshop 10월 28일, 30일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 ▶ Concert <Music of Klaus Huber&Younghi Pagh-Paan> 10월 31일 19시 /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Klaus Huber-Ein Hauch von Unzeit I für Flöte solo(1972)

III. Composer's Studio

- ▶ 작곡가 서경선 Lecture <한국전통악기 사용에 관한 소견: 국악관현악을 위한 '울림'> 11월 15일 15시 /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 ▶ 작곡가 유진선 워크샵 콘서트 11월 15일 17시 /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



The New Music Ensemble of EAMT (Estonia Academy of Music and Theatre)

EAMT의 New Music Ensemble은 Taavi Kerikmäe의 지휘 아래 2006년부터 연주활동을 시작했고 2006년과 2007년, 각각 Louis Andriessen과 K. Penderecki를 초청하여 음악회를 개최한바있다. 이번 서울 연주에서는 Toivo Tulev로 대표되는 Estonia의 현대양상을 작품을 선보였다.

연구소 소식

서양음악연구소http://wmri.snu.ac.kr

I. 서양음악연구소 대외 학술행사

- (1) 한독음악학회·서양음악연구소 공동주최 호르찬스키 교수 초청행사 (전, 독일 뮌스터대학 음악학 교수)

- 공개 강연 I : 9월 20일(토) 오전 10시(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시청각실) "18세기 오페라 무대에서의 오르페우스" (Orpheus auf der Opernbühne des 18. Jahrhunderts) 통역: 장우형(성신여대 강사) / 질의: 김은하(이화여대 강사) / 진행:이화병(한세대 대학원 겸임교수)
- 공개 강연 II : 9월 23일(화) 오후 4시(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3동 109호) "18세기 협주적교향곡 장르의 형성" (Die Herausbildung einer normierten Gattung: Die Konzertsymphonie des 18. Jahrhunderts) 통역: 장우형(성신여대 강사) / 진행: 오희숙(서울대 교수 및 서울대 서양음악연구소 소장)
- 콜로키움 I : 9월 19일(금) 오후 7시(장로회신학대학 세미나룸) "괴테 시대의 청중" (Das Publikum der Goethe-Zeit) 진행: 지형주(연세대 음악연구소 상임전문 연구원)
- 콜로키움 II : 9월 22일(월) 오후 7시(서울대학교 음악대학 53동 109호) "함부르크의 브로케스-수난곡(카이저, 헨델, 텔레만, 마테손)" [Die Brockes-Passionen in Hamburg (Keiser, Händel, Telemann, Mattheson)] 진행 : 조연숙(서울시립대 강사)

(2) Academia Musica (서양음악연구소 주최 초청학술강연)



- 정재승 박사(KAIST 교수) 초청특강 "What Happens in the Music Perception?" 일시: 10월 23일(목) 16:00(54동 210호)
- 이성철 초청특강(한양대 강사) "실내악의 즐거움-고전시대 실내악 세계" 일시: 11월 10일(월) 16:00
- 작곡가 초청특강 - 이동은 교수(서울대 작곡과 교수) "나의 음악 세계" 일시: 11월 14일(금) 14:30(55동 203호)
- 작곡가 초청특강 - 한옥미 교수(카톨릭대 작곡과 교수) "비정형적 음악 활동-음악전시" 일시: 11월 18일(화) 16:00(53동 109호)



(3) Lecture Concert

- Jazz Concert "김가온 트리오" 초청 렉처콘서트 일시: 10. 17(금) 14:30-15:30(음악대학 시청각실)
- 비올리스트 Nobuko Imai 초청 렉처콘서트 일시: 11월 20일(목) 18:30(예술관 콘서트홀)

- (4) 서양음악연구소 발간 학술지『음악이론연구』13집(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일시: 12월 15일 발간예정

II. 이론전공 교내 학술행사

- 작곡과 이론전공 논문발표회 / 일시: 12월 중 예정

동양음악연구소

제8회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남과 북의 전통음악" 개최

일시: 2008. 9. 3. (수) / 장소: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양음악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제8회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를 "남과 북의 전통음악"이란 주제로 개최하였다.

남과 북의 전통음악에 있어서의 간극과 그 양상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다. 발표 논문들의 주제는 남북한 음악의 동질성과 이질성, 남과 북의 악기개량, 남과 북의 이론연구, 남과 북의 가요: 재외동포의 국악전승, 남과 북의 창작음악, 남과 북의 민요창법, 남과 북의 국악교육 등으로 구성되었다. 남북한의 전통음악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간극의 양상을 살피고 각각의 변화 양상과 연구 양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자리였다.

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 가운데 일부는 해마다 동양음악 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 『동양음악』(Tongyang Umak)으로 출판된다. 『동양음악』은 1998년 이래 한글과 영어 2개 국어로 발간하고 있는 국제 학술지이다. 『동양음악』은 국·내외의 민족음악학 관련 연구성과를 널리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음악 및 민족음악을 연구하는 내·외국인 학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울러 민족음악학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국내 학계에 제공해 주고 있다. 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글들을 본 학술지에 수록하여 발간함으로써 분단 이후로 계속된 남·북한의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양음악연구소에서 매년 1회 발간하고 있는 『동양음악』은 현재(2008.10) 제29집(2007년)까지 발간된 상태이며 2009년 2월에 제30집(2008년)이 발간될 예정.

오페라연구소

오는 12월 19~20일 서울시오페라단(단장 박세원교수)은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극장(TEATRO VERDI)에서 '라 트라비아타' 초청공연을 갖는다. 국내 최정상급의 실력을 뽐내는 성악가가(비올레타 역 김은주, 알프레도 역 나승서, 제르몽 역 최진학)들과 함께 서울음대 성악과 학생들도 함께 이탈리아 무대를 밟는다. 학생들은 1부 합창과 여러 조역으로 데뷔무대를 갖을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은 1801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 이태리4대극장의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이번 서울시오페라단은 오페라 중추국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라 트라비아타'를 가지고 공연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서울대학교 제25회 정기오페라 ‘리골레토(Rigoletto)’



【공연 기획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예술총감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박세원교수
 지휘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김덕기교수
 연출 | Carlo Antonio de Lucia
 (2007년 서울시오페라단 리골레토 연출가)
 기획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조교 김강찬
 총무 | 서울대학교 오페라 연구소 조교 이창원
 리골레토 | 김광현, 문용재, 유영광, 장길웅, 최희운
 만토바 공작 | 김은국, 김유중, 손하림, 유현호, 최영준
 질다 | 이민정, 성이현, 박소영, 정나라, 허희경
 스파라푸칠레 | 송일도, 박기욱, 정지훈
 맛달레니 | 김은희, 변정윤, 우지은, 최승윤
 여자연기자 | 성악과 1학년 여학생
 남자합창 | 성악과 1,2학년 남학생

지난 2008년 10월 15일~1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는 음악대학과 오페라연구소 주최로 제25회 정기오페라 ‘리골레토(Rigoletto)’가 열렸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정기오페라는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예술 공연으로 오페라를 통해 국내 최고 기량을 가진 대학 오페라단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류층들만의 문화라고 이해되는 ‘오페라’라는 장르를 학교 안에서 무료로 공연하여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이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사회 환원적 성격을 국립대학이라는 틀을 통하여 발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2002년 서울대학교 내에서 공연한 이후 관악 구민의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서울대학교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본 공연은 출연진뿐만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에게도 좋은 기회였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10월에 점점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캠퍼스에서 서울대 구성원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본 오페라를 통해 서울대 구성원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학기와 한 해를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었으며 본 오페라를 통해 학업에 전념하느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재학생들에게 국내 최고 기량을 가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오페라단의 연주는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았다.

오페라 ‘리골레토(Rigoletto)’는 전 3막으로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은 즐긴다(Le Roi s’amuse (1832)’에 의한 프란체스코 피아베의 대본으로, 베르디가 작곡하여 1851년 3월 베네치아의 페니체극장에서 초연되었다. 리골레토는 호색가 만토바공작의 시중을 드는 폼추 익살꾼이다. 리골레토의 딸 질다는 학생으로 변장한 공작을 사랑하고 공작은 그녀를 농락한다. 이를 안 리골레토는 복수를 맹세하고 공작을 살해할 것을 자객 스파라푸칠레에게 의뢰한다. 이를 안 질다는 스스로 공작 대신 자객에게 쫓려 죽고 리골레토는 절망한다. 이 작품은 ‘라트라비아타’, ‘일트로바토레’와 함께 베르디의 중기를 대표하는 걸작으로 개개의 등장인물의 성격이 음악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드라마의 전개 속에서 잘 통일되어 있다. 공작이 부르는 ‘이것도 저것도’, ‘여자의 마음’, 질다가 부르는 ‘사모하는 이름’ 등의 아리아를 비롯하여 제 3막의 4중창 등 오페라 사상 명곡으로 불리는 악곡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INTERVIEW

예술총감독_ 박세원 교수



1. 2년 만에 무대에 올리는 정기오페라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기억에 남는 일은 역시 이번 정기오페라공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점입니다. 2006년 ‘돈 조반니’에 이어서 이번 ‘리골레토’도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오셨는데, 아직 배우는 단계인 학생들이 공연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 수준은 기성 오페라단 못지않으며 어떤 면에서는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장소가 예술전용극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장이 조금 낙후되어 위험성과 안정성에 주의를 두어야했습니다. 물론 극장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보다 더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도록 극장으로서의 기능점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공연뿐만 아니라 학술 세미나 등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오페라를 올리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오페라는 공연 당일엔 얼마나 멋진 작품을 보여주는가도 중요하지만 공연을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페라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무용, 미술, 조명, 소품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팀워크와 팀원들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팀원들 간에 똘똘 뭉치고 일심동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우리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더욱 살린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공연을 올릴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3. 대학오페라가 갖는 장단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이들은 대학오페라를 반드시 유명 오페라홀에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도 수년 전에는 외부에서 공연을 했지만 장소로 인하여 과시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오페라는 기성오페라단이 공연을 올리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보충해야할 점들이 있지만 서울대학교 정기오페라는 장소를 넘어서 원작 그대로 공연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사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되도록이면 원형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학오페라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중심이기 때문



1막-몬테로네백작의 저주를 받고 두려워하는 리골레토 1막-리골레토와 두카 1막-무도회 장면, 체프라노 백작



1막-무도회 장면, 체프라노백작 2막-유모에게 질다를 잘 보살펴달라고 하는 리골레토 2막-사랑을 속삭이는 질다와 두카 3막-괴로워하는 리골레토



3막-두카를 사랑하는 질다의 고백 3막-리골레토가 딸 질다를 찾는 장면 3막-리골레토와 질다의 이중창 3막-복수를 다짐하는 리골레토와 아버지를 달리는 질다의 이중창



3막-복수를 다짐하는 리골레토 3막-질다가 납치되어 괴로워하는 두카 3막-자신들이 질다를 납치하여 성에 두었다는 내용의 합창

에 최대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많은 공연경험이 중요하지요. 이번 ‘리골레토’에서는 출연진이 5팀이었는데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트레이닝과 많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5팀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 한 사람이라도 더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고생하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4.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을 남겨주세요.
 음악인은 운동선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음악성이나 천재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연습만이 실력을 좌우합니다. 세계적인 대가라도 뒷모습에는 끊임없이 연습을 유지합니다. 결코 나태해서는 안 되며 강도 높은 훈련과 끊임없는 연습만이 자신의 실력을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또한 많은 무대경험을 통하여 교수님께 배운 것들을 실제로 확인하고 고쳐나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떠한 연주라도 거절하지 않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질다역_ 이민정 (서울대 음악과 석사과정)



1. 오페라 공연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저는 이번 오페라 공연을 통해서 저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오페라 가수인데, 한 번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오페라 공연을 하기 전까지는 그냥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페라 공연을 계기로 제 꿈이 더욱 더 구체화 되었다고 할까요? 유학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음악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등등 막연한 의문이 많았는데 이번 공연을 통해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2. 오페라를 올리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입니다. 오페라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많이 맞춰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캐스팅이 너무 많은 관계로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단 한번의 공연밖에 하지 못했던 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3. 가곡과 오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표현이 아닐까요? 오페라는 자신을 맘껏 표현할 수 있는데 반해서 가곡은 절제된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완급을 작품에 맞게 조절해야하므로 가곡과 오페라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옥 Summer Music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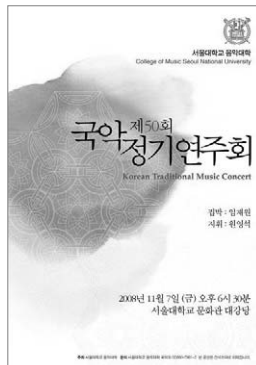
2008년 7월 28일~8월 8일,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주최로 올해로 3회를 맞는 기악과(바이올린 전공) 김영옥 교수의 Summer Music Academy가 열렸다. 11일 동안 치열한 오디션 통과한 20명의 수강생들이 오전 10시부터 50분 간격으로 3~4회의 레슨을 받는 가운데 매일 강의실은 청강생으로 붐볐다. Music Academy의 마지막 날에는 ‘김영옥과의 대화’가 있었으며, 그 후 바로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수료식 및 이정민(서울대), 송지원(커티스 음악원), 신성희(서울대) 학생의 우수학생연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최은식 Summer Viola Workshop”

올해 처음으로 기악과 최은식 교수의 “Summer Viola Workshop”이 2008년 7월 17일~7월 29일 11일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 주최로 개최되었다.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한 18명의 수강생들이 오전 10시부터 50분 간격으로 예술관 실내악실에서 3~4회의 공개 레슨을 받았다. 28, 29일에는 양일간 참가학생 전원이 각자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했으며, 특히 수료식이 겸해졌던 29일 연주회에서는 최은식 교수를 중심으로 18명의 수강생 전원이 함께 무대에 올라 J. S. Bach의 “Ciaccona”를 앙상블로 들려줘 관객들의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국악과 제50회 정기연주회



2008년 11월 7일 문화관 대강당에서 서울음대 제50회 국악정기연주회가 열렸다(집박: 임재원, 지휘: 원영석). 1부에는 관악합주 “보허자”, 거문고독주 “수리재”, “태평소와 실내악”이 연주되었으며 2부에는 관현악 “연변목가”, “선부리”, 관현환상곡 “하늘 춤”이 연주되었다. 이번 공연은 국악과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독주와 실내악, 관악합주, 관현악 그리고 위촉초연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즐거운 연주를 선사하였다.

첼리스트 요요마 서울음대 방문

지난 11월 12일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가 서울음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를 열었다. 3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요요마는 첼로연주에 관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레슨을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수업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다. 유엔 평화사절로 활동 중인 스타 첼리스트 요요마는 1955년 프랑스 파리 출생으로 5살에 첼로를 시작하여 다양한 연주활동과 앨범 발매 그리고 그래미 상을 포함한 수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앨범 데뷔 30주년을 맞아 새 앨범 ‘기쁨과 평화의 노래’를 발매하였다.



2008년 2학기 서울대생과 관악구 주민을 위한 서울대학교 화요음악회 SNU Tuesday Concerts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예술공연 행사로 음악회를 통해 국내외 저명한 연주자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보다 친숙하고 가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 학기에 5회~7회 공연되는 화요음악회는 외국 유명대학 교수님들의 공연, 실력 있는 외부 연주단체 초청, 서울음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디션에서 선발된 학생 연주단체의 공연, 서울음대 교수님들의 Faculty 공연 등 수준 높은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관악 구민의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서울대학교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 1회 | 강효정-바로크음악 콘서트
일시: 10월 28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2회 | 피아니스트 Christopher Harding Recital
일시: 11월 4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3회 | The Pathway Ensemble
일시: 11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4회 | 초청특별연주 Janos Mate, 백청심, Oliver Kern 트리오 콘서트
일시: 11월 26일(수요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 5회 | TIMF 앙상블 &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일시: 12월 2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비올리스트 ‘노부코 이마이’ 초청연주



지난 11월 20일 서울음대 예술관에서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노부코 이마이(Nobuko Imai)의 초청연주가 열렸다. 이번에 노부코씨를 초청한 최은식교수(기악과)는 ‘노부코씨와는 여러 음악 페스티벌 협연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며 ‘이번에 노부코씨가 대만 공연을 겸해 서울대에서도 공연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리 바쉬메트, 김 카슈카쉬안과 함께 3대 비올라 솔리스트로 꼽히는 노부코 이마이는 토호음악원(the Toho School of Music)을 졸업한 후 도미하여 예일대(Yale University)와 줄리어드(the Juilliard School)를 졸업하였고 뮌헨(Munich)과 제네바(Geneva) 국제 콩쿨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 비엔나 필 등과도 연주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바로크 시대부터 현대 음악까지 다양한 시대를 넘나드는 40여장의 음반을 녹음했고 현재 암스테르담과 제네바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 명성에 걸맞게 연주 당일에는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J. S. Bach의 ‘Chaconne for four Violas’, M. Reger의 ‘Solo Suite No.1 g-moll op.131d-1’, F. Hendel(arr. Hosokawa)의 ‘Lascia Ch’io Pianga with Piano’, S. Prokofiev의 ‘several works from “Romeo and Julliet” with Piano’ 그리고 C. Frank의 ‘Sonata with Piano(Original_Violin)’를 연주하였다.

이날 공연에 앞서 노부코 이마이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총 14시간의 마스터클래스(공개레슨)를 가지기도 했다. 이번 마스터클

래스에 참여한 이상윤씨(기악과 08)는 ‘곡에 따라 비브라토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 테크닉적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존경하는 노부코 선생님의 지도를 직접 받은 것은 대단히 귀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공연 연습 할 시간조차 빠듯한 노부코 이마이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비올라 연주를 진정 즐기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비올라를 연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올라는 내 인생의 악기이고 이것은 마치 소명파도 같다. 때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 영감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비올라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원래 성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인간의 목소리가 모든 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올라는 인간의 목소리를 가장 닮은 악기이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편안하면서도 감동을 준다. 사실 소프라노보다는 메조소프라노나 알토를 좋아하는데 그런 이유로 바이올린보다 비올라를 좋아한다.

후학에게 조언을 한다면 음악은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는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 음악은 평생의 작업이다. 요리를 한다든지 다른 생각을 할 때조차도 정신은 음악으로 인해 항상 바쁜 상태여야 한다. 또한 음악은 직업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취미가 돼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오직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기 때문이다. (대학신문에서 발췌)

국제교류

만하임 방문교수

2007년 2학기,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의 방문교수 프로그램으로 서울음대의 강병운 교수(성악), 전상직 교수(작곡), 김귀현 교수(국악), 오희숙 교수(이론)가 만하임음대에 방문하였다. 그리고 만하임 음대에서는 Roman Nodel 교수(바이올린), Kuhn 교수(타악기) 그리고 Ulrich Eisenlohr 교수(가곡반주)가 서울음대에서 마스터 클래스와 개인-실내악 레슨 및 독주회를 개최했다.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와의 인연은 2001년 독일에서 개최된 합동연주회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서울음대와 만하임음대 관현악전공생들로 구성된 연합오케스트라는 서울음대의 임현정 교수와 만하임음대의 클라우스 아르프 교수의 지휘로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과 R.슈트라우스의 ‘영웅의 생애’를 함께 연주하며 음악적인 교감을 나눴다. 두 음악대학의 우정은 2001년 6월에 맺은 서울음대-만하임 국립음대 교류협정 체결로 더욱 돈독해졌다. 이후 서울음대-만하임음대 연합오케스트라는 2002년 10월 16일 예술의전당에서 R.슈트라우스의 ‘차라투스 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연주했고, 2005년에는 세계적인 연주홀인 카네기홀 무대에서 함께 연주해 현지

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울음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하임 국립음대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만하임 국립음대 홈페이지(<http://www.muho-mannheim.de/>)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음대-동경예술대학 합동관악합주

지난 11월 1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음대와 동경예대의 관악합주 합동공연이 열렸다. 동경예대는 메이지 20년인 1886년에 세워진 학교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고의 예술대학이다. 2001년 4월 체결된 서울음대와 동경예대의 교류협정은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음악대학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체결 이후 꾸준한 연주활동을 가져왔다. 김영률 교수와 Eiichi Inagawa의 지휘로 ‘Overture La Forza Del Destino’, ‘Elsa s Procession to the Cathedral from Lohengrin’ 등을 연주한 이번 공연을 통해 서울음대와 동경예대는 보다 돈독한 유대관계를 확인하고 양교가 보다 세계적인 음악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동경예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geidai.ac.jp/>)를 통해 얻을 수 있다.